

# 코스피, 장중·종가 '사상 최고치'...K-증시 '거침없는 불장'

### 3,650선 첫 돌파...시총 3천조 시대 활짝 미중 갈등 우려 희석·부동산 대책 등 영향

코스피가 15일 미중 무역갈등 재격화 우려 속에서도 상승 출발, 3,600선을 재탈환하며 장중 및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모두 갈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5.47포인트(2.68%) 오른 3,657.28로 거래를 종료했다.

지수는 1883포인트(0.53%) 오른 3,580.64로 개장한 이후 꾸준히 고점을 높여갔고, 장 막판 한때 3,659.91까지 오르는 기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전날에도 장 중 한때 3,646.77까지 상승, 직전 장중 최고치(3,617.86·10월 10일)를 갈아치웠으나 이후 급락해 3,561.81로 장을 마쳤는데 하루 만에 이를 만회한 것을 넘어 새로운 기록을 쓴 것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가총액도 3천11조9천81억 원으로 전날(2천933조8천782억 원)보다 2.66%가량 증가, 사상 처음으로 3천조 선을 넘어섰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장보다 9.7원 내린 1,421.3원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7천516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으며, 이중 연기금 등

## 코스피 추이

증가 기준 (전거래일 대비 2.68% ↑)  
10월 15일 3,657.2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2025년

연말뉴스 자료: 연립인포팩스, 한국거래소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현판에 코스피 및 개별 종목 증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5.47포인트(2.68%) 오른 3,657.28로 마감했다. /연말뉴스

이순매수한 금액이 822억 원이었다.

외국인도 1천629억 원을 순매수했으나, 개인은 홀로 9천707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0.44% 오른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

수는 각각 0.16%, 0.76% 하락했다.

뉴욕증시는 전날 코스피 급락의 계기가 됐던 중국 정부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등의 여파로 급락 출발했다.

협상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한때 반등세가 나타나기도 했으나, 장 막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비판하

며 "식용유 및 기타 교역품목과 관련한 중국과의 사업관계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점이 투자심리를 짓눌렀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각각 4.1%와 3.52% 하락하는 등 인공지능(AI) 및 반도체주도 약세였다.

그러나 이날 삼성전자는 3.71% 오른 9만5천 원으로 거래를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2.67% 오

른 42만2천500원에 장을 마쳤다.

전날 7.10% 급락했던 한화오션도 이날은 1.91% 오른 10만5천10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9.74%), 두산에너빌리티(9.37%), 삼성물산(5.75%), KB금융(4.33%), 신한지주(3.95%), 한화에어로스페이스(2.25%) 등 여타 시가총액 상위종목들도 대부분 상승 마감했다.

중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의 위험 노출 규모가 크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수준도 제한적인 만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신경전의 일환이란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 시장의 우려가 잦아든 결과다.

이에 더해 이날 한국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쏠려 있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것도 코스피 상승의 배경이 됐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16.76포인트(1.98%) 오른 864.72에 장을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등락이 엇갈렸다.

레인보우로보틱스(3.41%), 파마리서치(2.81%), 휴젤(2.44%), 리노공업(1.58%), HLB(1.31%) 등이 올랐고, 리가켄바이오(-1.77%), 삼천당제약(-1.04%) 등은 내렸다. /연말뉴스

## “美 관세 25% 유지 시 현대차그룹 비용 연 8.4조”

### 도요타·GM·폭스바겐 웃돌아

### 영업이익률도 9.7→6.3%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 25%로 유지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관세 비용이 연간 8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에는 미국 자동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 조속한 관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나이스인용평가의 자동차 산업점검에 따르면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 한국이 25%, 유럽연합(EU)과 일본은 15%로 적용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관세 비용은 8조4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글로벌 완성차업체(OEM) 톱 4로 함께 꼽히는 도요타(6조2천억 원), GM(7조 원), 폭스바겐(4조6천억 원)을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연간 영업이익률은 기존 9.7%에서 6.3%로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영업이익률 하락 폭 역시 도요타(1.6%포인트·9.7→8.1%), GM(3.0%포인트·8.0→5.0%), 폭스바겐(1.2%포인트·6.0→4.8%)보다 큰 수준이다.

GM은 관세 비용과 영업이익률 하락 폭 모두에서 현대차그룹 다음을 차지했는데 대미 수출 기지 역할을 하는 한국GM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GM은 지난해 약 42만대를 미국에 수출했다.

한국 자동차도 일본, EU처럼 대미 관세율 15%를 적용받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현대차그룹의 관세 비용은 5조3천억 원으로 줄어 들고 영업이익률은 7.5%를 기록할 전망이다.

만약 한국이 지난 7월 미국과 합의했던 관세 인하 방안이 무산된다면 현대차그룹이 부담하는 비용은 3조1천억 원 늘어나는 셈이다.

보고서는 “현대차그룹은 우수한 수익성과 재무적 융통성을 바탕으로 관세 부담을 일정 수준 대응하는 것은 가능한 전망이지만, 주요 경쟁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기반으로 가격 인하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경우 미국 내 경쟁 구도가 변동될 위험이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연말뉴스

## 공정위, ‘와우멤버십 눈속임’ 쿠팡 등 제재

쿠팡·웨이브·NHN벅스·스포티파이가 기관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특히 쿠팡은 최소 4만8천명 이상의 구독자를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웨이브·NHN벅스·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과

태료 총 1천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업체별 과태료는 쿠팡 250만원, 콘텐츠웨이브 400만원, NHN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다. 자진 시정한 점이 고려돼 과징금 등 더 선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연말뉴스

## aT, 홍콩 축제서 K-포도 차세대 품종 등 홍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5일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홍콩 PMQ 광장에서 열린 ‘2025 한국광장(Korea Square 2025 Festival Weekend)’에 참가해 한국 포도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현지에 알렸다”고 밝혔다. <사진> 주홍중한국문화원이 주관한 ‘한국광장’은 K-푸드, K-팝, K-뷰티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즐기기에 현지인들이 집결하는 홍콩의 대표 한국 문화 축제다.



aT는 이 자리에서 한국 포도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하고 차세대 수출 유망 품종을 알리기 위해 한국포도수출연합과 함께 ‘K-Grape NEXT’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K-포도 신품종 홍보관’을 운영했다.

홍보관에서는 코코볼, 글로리스타, 슈팅스타, 홍주 씨들리스 등 차세대 포도 수출 유망 품종을 집중 소개하고 시식행사와 디저트 페어링, ‘포도 탕후루’ 만들기 체험도 마련해 참가자들이 한국산 포도의 새로운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요거트 아이스크림 업체와 협업해 포도를 토핑으로 활용한 디저트를 선보이며 K-푸드와 한국 프랜

차이즈 콘텐츠를 연계한 새로운 마케팅 방식으로 현지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장을 찾은 한 현지 소비자는 “그동안 자주 접했던 사인머스켓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포도 품종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며 “특히 슈팅스타는 그 자체로도 달콤하고 향이 진한데, 아이스크림과 곁들이니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전기찬 aT 수출식품부장은 “이번 행사는 홍콩 소비자에게 한국 포도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소개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하고 차세대 유망 품종을 앞세워 K-푸드의 시장을 넓혀가겠다”고 전했다. /안태호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할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